

비즈 트렌드 | 추석선물 '프리미엄 세트-안심배송'이 대세

“엄마, 고향 못가는 대신 고급 선물 드릴게요”

롯데백, '흑산도 홍어' 등 고가출시
홈플러스 한우 등 20만원대 세트 판매
현대백은 '안심배송'으로 방역 강조



코로나19 재확산 여파가 추석 선물세트 트렌드를 바꾸고 있다. '농협안심한우 1등급 정육 냉동세트' 등 프리미엄 상품을 강화한 홈플러스 추석선물세트(왼쪽)와 현대백화점 '안심 배송 서비스'.



보름 여 앞으로 다가온 추석을 맞아 유통업계의 선물세트 본판매가 시작된 가운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 여파가 선물세트 트렌드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예년보다 프리미엄 선물세트를 대폭 강화한 게 특징이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고향 방문 대신 선물세트 배송으로 대체하는 만큼 선물이라도 고가로 보내려는 수요를 반영했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의 농축수산물 선물 상한액이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일시 조정된 것도 영향을 끼쳤다는 분석이다.

롯데백화점이 '흑산도 홍어 세트', '목포 반건병어 세트', '거제 황제한우 1호 세트', '심덕수 명인 창령 꽃감' 등

지역 유명 특산물을 기반으로 한 프리미엄 선물세트를 대거 선보인 것이 대표적 예다. 홈플러스도 '농협안심한우 1등급 정육 냉동세트', '명품 제주갈치 세트', '봄에 잡은 참굴비 세트 1호' 등 10만~20만 원대 정육·수산 세트 판매를 늘렸다.

이재욱 롯데백화점 상품본부장은 "코로나19 여파로 명절임에도 고향을 방문하거나 직접 만나 인사하기가 어려워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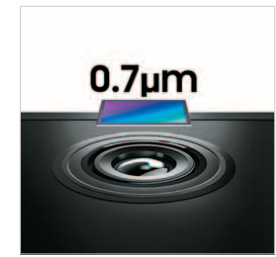
다"며 "마음을 담은 선물로 감사와 안부 인사를 대신하고자 하는 고객을 위해 정성껏 준비해 전달하겠다"고 했다.

선물세트 방역 작업에도 안간힘을 쏟고 있다. 추석 선물 배송 과정에서 코로나19 확진 환자 발생 시 배송 업무 자체가 마비될 수 있기 때문이다. 현대백화점의 '안심 배송 서비스'가 대표적이다. 선물세트 포장 직원과 배송 기사에게 K F94 마스크와 위생장갑 착용을 의무화

했다. 물류센터에 전문 방역업체 직원이 상주해 선물세트 배송 상자에 살균 소독액을 뿌린 후 '안심 선물 스티커'를 부착한다. 신현구 현대백화점 식품사업부장은 "배송과정에서 고객과 배송 기사 간 접촉을 최소화하는 비대면 배송 서비스로 진행할 것"이라며 "안심 배송 서비스를 통해 방역 지침 준수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라고 했다.

정영욱 기자 jay@donga.com

삼성전자, '0.7μm 픽셀' 이미지센서 공개 카메라 모듈높이 10%↓... '카툰' 줄인다



스마트폰의 일명 '카툰' (카메라가 특 튀어나옴)가 줄어든다.

삼성전자는 0.7마이크로미터(μm) 픽셀을 활용한 모바일 이미지센서 제품(사진) 4종을 공개했다. 업계 최소형 제품으로 초소형 픽셀 시장 확대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신제품은 0.7μm 픽셀 최초의 1억800만 화소 '아이소셀 HM2'와 4K 60프레임 촬영이 가능한 6400만 화소 'GW3', 초광각과 폴디드Zoom을 지원하는 4800만 화소 'GM5' 베젤리스 디자인 구현에 최적화된 초소형 3200만 화소 'JD 1' 4종류다.

0.7μm 픽셀로 1억800만 화소 제품을 구현할 경우 0.8μm을 이용할 때 보다 이미지센서의 크기를 최대 15% 줄일 수 있다. 이미지센서가 작아진 만큼 카메라 모듈의 높이가 최대 10% 낮아져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카메라의 높이를 낮출 수 있다는 것이 삼성전자 측 설명이다.

박용인 삼성전자 시스템LSI사업부 센서사업팀장(부사장은) "삼성전자는 지난해 0.7μm과 1억800만 화소 제품을 최초로 공개하는 등 센서 혁신을 주도하고 있다"며 "이번 신제품 라인업으로 초소형·고화소 시장을 확대하는 한편 센서 혁신 기술 개발을 지속해 한계를 돌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명근 기자 dionys@donga.com



“수미네 간편식 시리즈 맛보세요” 편의점 세븐일레븐이 15일 홍보대사 김수미와 함께 한 '수미네 간편식 시리즈'를 선보였다. 집밥의 아이콘 배우 김수미가 상품 기획부터 레시피 개발, 맛 평가 등 전반적인 출시 과정에 참여했다. 동성훈도사막, 파티국수, 순댓국 등으로 구성했다. 정영욱 기자, 사진제공 | 세븐일레븐

“100만명이 뽑았다”...기아차, ‘러시아 올해의 차’ 4개 부문 석권

기아자동차가 '2020 러시아 올해의 차 (Car of the Year)' 시상식 4개 부문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기아차는 '2020 러시아 올해의 차'에서 피칸토(모닝)는 도심형 소형차, 씨드는 준중형, 셀토스는 소형SUV, 스텔링어는 그랜드 투어링카 부문에서 각각 올해의 차로 선정됐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기아차가 러시아에 진출한 이래 최다 부문 수상이다.

피칸토는 최종 후보에 오른 피아트 500을 제치고 디자인, 공간성, 편의사양에서 호평을 받아 최우수 차로 선정되며 5년 연속 최고의 '도심형 소형차'로 인정받았다.

씨드는 지난해 '올해의 신차' 수상에 이어 올해는 '준중형' 부문에서 최우수 차로 등극했다. 씨드 해치백, 씨드 스포츠웨건, 프로씨드, 엑씨드 등 다양한 라인업으로 구성된 씨드는 최종 후보인 도요타 코롤



기아자동차 스텔링어, 씨드, 피칸토(모닝), 셀토스(왼쪽부터)가 '2020 러시아 올해의 차'로 선정됐다. 사진제공 | 기아자동차

라 대비 주행성능 부분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소형 SUV 부문에서 올해의 차로 선정된 셀토스는 디자인, 공간활용성, 동급 최고의 편의사양으로 러시아 고객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출시 6개월 만인 8월에 1783대를 판매하며 리오(7664대), 스포티지(898대)와 함께 러시아 시장을 이끄는

기아차의 주역으로 떠올랐다.

기아차 최초의 그란 투리스모(GT) 모델인 스텔링어는 최종 후보에 오른 포르쉐 파나메라를 제치고 올해의 차로 선정됐다. 스포티한 디자인과 뛰어난 동력성능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알렉산더 미갈 기아차 러시아 권역본부 운영책임은 “올해의 차는 고객의 투표로

피칸토·씨드·셀토스·스텔링어 선정
러시아 시장에서 판매 2위, 수입차 1위

선정되기에 큰 의미가 있다. 디자인, 품질, 성능 등 핵심적인 분야에서 좋은 평가를 받은 것이 이번 수상의 비결이며 특히 기아차 역사상 최다 부문 수상은 러시아 자동차 시장에서 확대되고 있는 기아차의 위상을 보여주고 있다"고 밝혔다.

기아차는 러시아 승용차 시장에서 8월까지 총 11만9075대를 판매하며 러시아 현지 업체인 라다(LADA)에 이어 전체 2위, 수입 브랜드 중에는 1위를 차지하고 있다.

'러시아 올해의 차'는 러시아에서 가장 권위있는 차량 시상식으로 2000년부터 진행되고 있다. '2020 러시아 올해의 차'는 1월부터 8월까지 약 100만 명의 자동차 전문가, 일반고객의 인터넷 투표를 통해 300개 모델을 대상으로 24개 부문에서 수상작을 선정했다.

원성열 기자 sereno@donga.com

건강 올레길 | 우리동네 주치의의 건강학

고령층 척추관협착증 치료, 척추내시경수술로 부담 완화

퇴행성 질환은 고령층 삶의 질을 악화시키는 대표적인 위험 요인이다. 나이가 들면서 소화기, 비뇨기, 호흡기, 근골격계 등 여러 부위의 조직 및 기능이 쇠퇴하는 퇴행성 변화가 나타난다. 이로 인해 통증, 신진대사 저하, 보행장애 등을 겪으면서 일상생활 속 커다란 불편을 호소한다. 특히 퇴행성 변화가 뚜렷한 신체 부위로 척추를 꼽을 수 있다.

척추관협착증은 척추 퇴행으로 발생하는 대표적인 질환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척추에는 척추뼈 뒤로 척추 신경이 지나가는 통로인 척추관이 자리하고 있는데 퇴행성 변화로 인해 좁아질 수 있다. 이때 내부

신경을 압박해 통증을 일으키는 것이 척추관협착증이다. 척추관협착증 발생 시 허리를 펴거나 걸을 때 극심한 통증을 일으킨다. 또 영치 또는 허벅지·종아리·발끝의 저림, 보행 장애, 야간 종아리 통증 등을 일으키기도 한다.

척추관협착증 발생 초기 상대적으로 약물 치료, 물리치료, 보조기 착용, 운동치료 등의 비수술 요법을 고려할 수 있다. 다만 증상이 심하다면 신경치료를 시행해 개선을 도모해야 한다. 물리치료 및 운동치료를 1개월 정도 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호전이 되지 않을 때 역시 마찬가지다. 특히 자기공명영상(MRI) 검사 결과 신경근 압박

정도나 척추관 협착이 심한 경우라면 재발 위험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해 수술적 치료를 권한다. 문제는 고령층의 외과적 수술 부담이 젊은층 대비 매우 크다는 점이다.

고령 환자들은 고혈압, 당뇨 등 기저 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외과적 절개나 마취 시술이 쉽지 않다. 특히 전신 마취 시 심혈관계, 중추신경계 등 다양한 조직에서 기능 저하를 일으킬 수 있다. 수술로 척추 구조물에 구조적 변화가 나타날 경우 퇴행성 변화를 부추길 수 있기도 하다.

최근에는 시술과 수술의 장점을 결합한 척추내시경 치료가 집중 조명을 받고 있다. 척추내시경 치료는 초고화질 내시경

장비와 수술기구를 동시에 삽입하여 치료 효율성을 더욱 높인 원리다. 기존 척추 치료와 달리 병변을 직접 관찰하며 치료하는 원리이기 때문에 더욱 뛰어난 정확도를 기대할 수 있다. 최소 절개로 이뤄지기 때문에 합병증 발생 확률이 낮아 고령층이어도 안심하고 치료할 수 있다. 전신마취가 아닌 부위마취로 시행 가능하다.

척추내시경 치료는 시술 담당자의 양손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정확성, 안정성을 동시에 보장할 수 있는데 특히 척추관을 넓히는 치료 뿐 아니라 디스크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데 효과적이어서 다양한 척추 질환에 적용 가능하다.



다립병원 김민우 원장

SKT “차세대 양자기술로 가스 누출 탐지”

SK텔레콤은 한국가스안전공사 가스안전연구원, 가스안전 전문기업 한국플랜트관리, 양자-광기반 센싱 전문 기업 퀀텀센싱과 15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양자 센싱'을 활용한 차세대 가스 안전 솔루션 상용화에 나서기로 했다.

양자 센싱은 더 이상 나눌 수 없는 최소 에너지 단위인 광자를 측정해 물체를 감지하거나 물질을 분석하는 기술이다. 양자 기반 가스 센싱 솔루션은 시료물에 빛을 발사하고 반사된 빛의 파장을 분석해 가스 누출 여부·농도를 측정하고, 위험성을 실시간 관제센터로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대규모 가스 시설물을 원거리에서 방대한 범위로 관찰하고, 실제 가스 누출 유무 및 누출 지점을 정확히 판단할 수 있는 것이 강점이다.

SK텔레콤은 한국가스안전공사와 함께 국내 대규모 가스 시설물에 양자 기반 가스 센싱 솔루션을 연내 시범 적용할 예정이다.